사랑하는 사람들에게~

“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” 약 1:15

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 안에 원하는 것이 난무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득한 욕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

한국에 온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까보베르데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씁쓰름하게 웃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

작은 순종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받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보상의 시간을 갖습니다.

내 안에 가득했던 욕심이 만들어 낸 죄로 인하여 아버지와 단절됐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늘에 속한 자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는 감사는 탕자에게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감사는 더욱 크기만 합니다.

비록 육신은 까보베르데를 잠시 떠나 있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들과 함께하며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큰 잔치에 참여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

2018년의 마지막 남은 12월 한 달 동안 까보베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한 달이 되기를 간구하며 몇 가지 기도제목을 올려드립니다.

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누리게 될 참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.

12월 기도제목

\*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통해 주어지는 자유 하는 삶의 거룩을 통해 이 시대의 본이 되는 자로 살아 갈 수 있기를

\* 한국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만남이 되기를

\* 제주 선교 대회(2019.01.15.~18일)를 통해 정직하고 깨끗한 선교의 모습이 쓰러져가는 한국 선교에 불을 지필 수 있기를

\* 리보네구아 교회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오고 선교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도록

\* 교회에서 자라는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 신청해 놓은 기독교 학교 인가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

\* 이동 보건소 차량과 리보네구아 대형 우물물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채워지기를

국가 기도제목

작년의 심각한 가뭄으로 힘들었던 서민들의 삶이 우기철 시작으로 어느 정도 해갈이 되는 것 같았지만 정작 우기철 후기에는 더 심한 가뭄으로 다가와 마른 우물을 채워주지 못하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 경제가 작년에 이어 계속 이어되고 있습니다.

특히 우기철 하반기에 많은 가축들이 죽고 있지만 가뭄 때문이지 혹은 전염병인지 조차 확인이 안 되어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

이민자들이 보내던 송금마저 30% 이상 줄어들어 최악의 서민 경제 상태라고 합니다.

유럽 국가들의 어려운 경제가 관광 수입마저 줄어 가고 있다는 소식은 서민들과 빈민들에게 최악의 2019년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.

\* 늦은 비라도 뿌려 주시기를 기대하며 평균 27도의 좋은 기후가 다 사라지고 33도를 훌쩍 넘기고 있는 최악의 기후라는 자연 재해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

\*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하여 UN을 통해 지원 요청을 하여 정작 어려운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

\* 카지노와 UNICV(까보베르데 대학) 신축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 사람들의 대다수가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로 채워졌는데, 마무리 작업만이라도 까보베르데인들이 일을 하여 어느 정도 서민 경제에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.

서부 아프리카 대서양의 작은 섬나라 까보베르데 조 남홍, 연섭 선교사입니다.

파송 교회 : 캐나다 큰빛 교회, TOV 교회

소속 단체 : 한국 불어권 선교회, GMP America

연락처 : nhongcho@ hanmail.net, 010-4793-0213

Kakao Tok ID : cavoverdecho